

- 주요 뉴스: 미국 8월 ISM 서비스 PMI, 전월비 상승. 양호한 결과는 고강도 통화긴축 부각
 -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 경기침체로 인플레이션 둔화 시 금리인상 속도 조절
 - 러시아 에너지장관,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되면 아시아 수출 확대를 모색
 - 중국 시진핑 주석,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주도 시스템 구축을 강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4%],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1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주요 국채금리 상승 등이 투자심리 저해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관련주 강세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8월 ISM 서비스 PMI 결과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3%, 1.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 유지 전망 등으로 3개월래 최고
 독일은 ECB의 큰 폭 금리인상 예상 등으로 8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78.4원, +6.7원) 0.5% 상승, 한국 CDS 보합

9/6일					9/5일				
전일대비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08.2	휴장	-0.41%	국채 금리 10y	미국	3.35%	휴장	16bp
	유럽	414.38	413.39	0.24%		독일	1.64%	1.56%	8bp
	중국	3,243.4	3,199.9	1.36%	CDS 5y	한국	33bp	33bp	0bp
	일본	27,627	27,620	0.02%		중국	72bp	75bp	-3bp
	한국	2,410.0	2,403.7	0.26%	위험 지표	EMBI+	-	442	-
환율	달러지수	110.23	109.53	0.64%		VIX	26.91	휴장	3.54%
	유로화	0.9904	0.9929	-0.25%		WTI유	86.88	휴장	0.01%
	엔화	142.80	140.60	-1.54%	원자재	구리	346.9	휴장	1.39%
	위안화	6.9545	6.9340	-0.29%		금	1,702.1	1,710.4	-0.48%
	원화	1,371.7	1,371.4	-0.0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ISM 서비스 PMI, 전월비 상승. 양호한 결과는 고강도 통화긴축 부각

- 해당 지수는 56.9를 나타내 전월(56.7) 및 예상치(55.1) 상회하면서 2개월 연속 오름세. 미국 경제에서 비중이 2/3에 이르는 서비스 부문의 활동 증가는 상반기 총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가 침체 국면이 아님을 의미
- 실제로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59.9→61.8)가 호조. 이 외에 고용(49.1→45.2) 등도 서비스 부문 활동이 양호한 상황임을 반영. 이는 소비 대상의 중심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한편 공급업체 운송(58.3→54.5)과 투입가격(72.3→71.5) 하락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다는 신호
- 투자자들은 이번 결과와 관련하여 연준이 상당 기간 강력한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 선물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0.75%p 인상이 이루어지고, 내년 3월에는 정책금리가 4%에 근접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발생
- 이를 반영하여 주요 국채금리 상승(2Y: 3.50% +12bp, 10Y: 3.35% +16bp), 주가 하락(S&P500 -0.41%), 달러화 지수(110.23, +0.64%) 상승이 지속.
- 다만 서비스 경기를 판단하는 또 다른 지표 S&P Global의 8월 서비스 PMI(확정치)는 전월비 하락(47.3→43.7)하며 5개월 연속 내림세. 이에 대해 S&P Global의 Chris Williamson은 경기둔화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Morgan Stanley, 경제성장 둔화로 금년 미국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 Mike Wilson 스트래티지스트는 향후 수 분기 동안 기업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 한편 내년 기업이익은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금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 경기침체로 인플레이션 둔화되면 금리인상 속도 조절

- 카자크스 총재는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기대, 임금 등이 향후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언급.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현행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

■ 러시아 에너지장관,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되면 아시아 수출 확대를 모색

- 니콜라이 슐기노프 장관은 원유 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오히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시장에서 유가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 러-우 전쟁 이전 기준으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에서 유럽 비중이 절반을 차지

■ 영국 트러스 차기 총리,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 방안 검토

- 전력 생산업체에 대한 1000억파운드 지원을 통해 가계에 공급되는 에너지 비용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계획. 이를 위한 재원은 세금 확대 혹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조달할 것으로 예상. 아직 황재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중국 시진핑 주석,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주도 시스템 구축을 강조

- 사회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학 및 기술 혁신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에너지, 수자원, 곡물, 토지, 광물, 원자재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보유 자원 활용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첨언

■ 일본 7월 가계 소비지출, 2개월 연속 증가. 엔화 약세 등으로 향후 전망은 불확실

- 해당 지출은 전년동월비 3.4% 증가. 하지만 엔화 약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소비 증가세 유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 또한 최근 코로나 19의 재확산 및 실질임금의 지속적인 감소 등도 향후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7월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비 1.3% 감소. 한편 스즈키 순이치 재무상은 환율이 각국의 기초 경제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최근 엔화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

■ 호주 중앙은행, 0.5%p 금리인상.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

- 정책금리를 7년 만에 가장 높은 2.35%로 제시했으며, 인플레이션 억제가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시기는 '24년 중반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6 현지시각 기준)

- 독일 7월 제조업수주(전월비): -1.1%, 6월(-0.3%), 예상치(-0.2%)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중립금리 판단, 지속적인 변동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과제 - 블룸버그

(Fed's Long-Sought Neutral Goal Proves Elusive and Moving Target)

- 파월 의장은 중립금리를 2.5%로 언급.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인식하는 중립금리는 2~3.75%로 개인마다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 또한 연준 인사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하면,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다고 진단
- 애틀란타 연은의 David Altig는 중립금리 관련 다양한 논의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현 상황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구체적 숫자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

■ 중국의 3대 위험 요인, 글로벌 리스크로 전개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Ignoring China's disastrous 'three Ds' could be a global risk)

- 최근 중국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3대 위험에 기인. 첫째, 부동산 분야에 집중된 과도한 부채(Debt). 당국은 금리인하 및 재정부양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신용수요 부진으로 관련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둘째, 코로나 19 등의 질병(Disease) 확산. 정부는 경제구조를 소비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 이에 소비자 및 기업 심리가 악화하며 소비와 대출이 부진
- 셋째, 기록적인 가뭄(Drought). 양쯔강 수위가 1865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자원을 활용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3대 위험으로 인한 중국의 성장 둔화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협할 우려

■ 미국의 금리인상, 레버리지론 채무불이행의 증가를 초래 - WSJ

(Junk-Loan Defaults Worry Wall Street Investors)

■ 영국 신임 총리의 경제정책, 정치적 반대와 재정부담에 직면할 소지 - WSJ

(Liz Truss to the British Rescue)

■ 유럽 전력 생산업체의 유동성 부족, 선물시장에서의 담보 확대 요구에 기인 - Financial Times

(Why are Europe's power producers running out of cash?)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